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지구대회, 역동적인 미래를 기약하는  
지구대회를 통해 Pride of RI 3650 기치를 높게 합시다”

## 클럽회장, 총무, 지구임원 2월 월례회의 개최

신입회원 환영식



안종원 지구대회위원장



김중 10지역대표의 국제봉사 보고



서창우 3지역대표의 지구대회 안내



서정림 지구대회 공연위원장



김재철 지구대회 우정의집위원장



서울마포RC 이동주 회장 봉사보고



지구 임원 및 클럽 회장, 총무단 2월 월례회의가 RI창립 113주년 기념일인 지난 2월 23일 이동건 전RI장, 운영석 로타리재단 이사를 비롯한 총재단과 지구임원, 클럽회장, 총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됐다.

최진욱 사무총장의 사회와 이순동 총재의 개회 타종으로 시작된 이날 월례회의는 총재 인사말에 이어 패밀리 투게더 회원증강 소개에 서울마포, 서울예장, 한양-연세 위성클럽 등 3개 4명의 회원들이 신입회원 환영식을 가졌다.

또한 3지역대표인 서창우 지구대회 부위원장과 서정림 지구대회 공연위원장, 김재철 지구대회 우정의집 위원장이 각각 오는 3월 30일(금)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제56년차 지구대회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소개의 시간이 이어졌다.

아울러 지난 1월, 10지역 클럽 공동 국제봉사사업으로 실시한 캄보디아 초등학교 책걸상 지원프로젝트를 김중 10지역 대표가 소개했다.

또한 지역 기반 클럽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마포 로타리클럽의 활동에 대해 이동주 회장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순동 총재는 2월 월례회의의 총재 메시지를 통해 “이번 지구대회가 한국로타리 90년을 맞는 금회기를 맞아 한국로타리 19개 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라며, 우리 지구의 역량을 한데 모아 한국로타리 90년, Pride of RI 3650 기치를 드높이는 잔치가 만드자” 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지구대회, 우리의 에너지를 한데 모으는 지구대회, 역동적인 미래를 기약하는 지구대회가 될 수 있도록 3650지구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한다” 고 당부했다.

월례회의의 참석자들은 3월 30일 개최 예정인 지구대회에 각 클럽별로 많은 회원과 가족의 참석을 결의하는 등 지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봉사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3월 월례회의는 3월 30일(금) 개최되는 제56년차 지구대회 참석으로 대체되며, 4월 월례회의는 4월 20일(목)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다.



월례회의의 참석한 서울마포RC 회원들과 기념촬영

## 9지역 클럽 회장단 모임, 지구 로타리안홀에서 개최

9지역 클럽 회장단 모임이 3월 9일, 3650지구 로타리안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모임은 9지역 서울북부로타리클럽과 한남로타리클럽의 총재공식방문을 겸하여 개최되었으며, 이순동 총재와 박광호 9지역대표를 비롯, 김현덕 한남RC 회장, 지규상 서울북부RC 회장, 이운택 서울성동RC 회장, 조병언 서울새한빛RC 차기회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순동 총재는 9지역 클럽들의 활발한 활동을 독려하였으며, 회원증강과 지구대회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유장희 회원(서울회현RC), 2020-21년도 지구 총재 지명



우리 지구의 2020-21년도 총재로 서울회현 로타리클럽 소속의 유장희 前총재특별대표가 피지명됐다.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지명위원회(위원장 고성대 前총재)는 지난 3월 22일 5명의 총재지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라자호텔에서 총재지명회의를 개최하고, 유장희 前총재특별대표를 지명했으며, 2018년 4월 6일까지 도전후보가 없어 RI 세칙 14조 2항 8호 규정에 의거, 2020-21년도 총재 피지명자로 공표했다.

1996년 3월 서울회현 로타리클럽 창립 회원으로 로타리 활동을 시작한 유장희 2020-21년도 총재 피지명자는 2012-13년도 클럽 회장을 거쳐 4지역대표와 총재특별대표 등 지구 임원으로 봉사해왔다.

유장희 2020-21년도 총재 피지명자는 1941년생으로, 미국 버지니아주립대 경제학부 교수와 서울대 초빙교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과 이화여대 부총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경제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포스코 이사회 의장, 자원봉사단체 BBB코리아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매경미디어그룹 상임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 2020-2021년도 총재 지명 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18년 3월 22일(목) 07:30, 프라자호텔
- 총재지명위원
  - 고성대 前총재(위원장), 문덕환 前총재, 이종원 前총재, 이영호 前총재, 박호군 前총재

### 2020-21년도 총재 피지명자 소개

**성명** : 유장희(柳莊熙)  
**소속클럽** : 서울회현 로타리클럽  
**생년월일** : 1941년생  
**입회일** : 1996년 3월 28일  
**현직** : 매경미디어 상임고문

#### 학력

1959 경기고등학교 졸업  
 1963 서울대 경제학 학사  
 1969 UCLA 경제학 석사  
 1972 Texas A&M 대 경제학 박사

#### 상훈

1985 한국경제학회 회장 감사패  
 1985 버지니아주립대 (상대) 최우수교수상  
 1998 국민훈장 동백장  
 2012 대한민국 대통령 감사패  
 2013 대한민국 협상대상

#### 경력

1972-26 미 클라크대 경제학 조교수  
 1976-88 미 버지니아주립대 경제학부 부교수, 교수  
 1988-89 서울대 초빙 교수  
 1992-97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1997-2005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  
 2003-2004 한국경제학회 회장, (현)명예회장  
 2004-2006 이화여대 부총장  
 2009-2012 POSCO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장(2011-12)  
 2010-2012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  
 2010-2017 BBB코리아 (자원봉사단체) 회장  
 2012.3-2014.7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2012.7-2013.6 서울회현로타리 클럽 회장  
 2015.7-2016.6 국제로타리 3650지구 4지역대표  
 2016.7-2017.6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특별대표  
 2006-현 이화여대 명예교수  
 2007-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2014.9-현 매경미디어그룹 상임고문

#### 로타리 기부실적(2018. 3월 현재)

MAJOR DONOR 레벨 (1) (US\$10,000) / 봉사의인 - 10구좌 (300만원)

## 존9/10A 지역 로타리재단 워크숍에 장세호 차기총재, 박수부 차차기총재, 변기태 차기사무총장 참석

김호택 RRFC(3680지구 전총재)가 소집한 2018-19  
년도 한국로타리 존9/10A 지역 로타리재단 워크숍이  
지난 4월 3일(화)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됐다.  
우리 지구에서는 장세호 차기총재, 박수부 차차기총재,  
변기태 차기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 한국로타리 19개 지구 2019-20년도 차차기 총재단, 삼천포 3590지구 순회방문 가져

우리 지구 박수부 차차기총재를 비롯  
한 전국 19개 지구 존 9, 10A 2019-  
20년도 총재단 각 지구 지역 순회  
방문이 서울, 창원 지역에 이어서  
2018.4.6.~7일 일정으로 3590지구  
(삼천포), 심산 강기용 총재가 주관하  
는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동안 현 지  
구 소개와 삼천포의 해상 절경과 지역  
문화를 돌아보고 끝으로 각 지구의 봉  
사 사업현황과 로타리 관심사항을 토  
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순회 방문은 6월 1~2일(금, 토)  
일정으로 안산 3750지구의 청산 운영  
중 차차기 총재가 주관한다.





## 자매지구인 일본 도쿄 RI2750지구대회 참석

이순동 총재 등 27명, 자매결연 28주년 맞아,  
韓日 양국 로타리안 뜨거운 우정 과시

이순동 총재 내외(우)와 사와타리 마사모리 2750지구 총재 내외(좌)

우리 지구 이순동 총재 내외를 비롯 임용익, 문덕환, 이종원, 박호균 전총재, 장세호 차기총재, 박수부 차차기총재 등 총재단과 지구임원, 클럽 회장 등 방문단 27명이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개최되고 있는 자매지구 국제로타리 2750지구(일본 도쿄) 2017-18년도 지구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일정에서 우리 지구 회원들은 도쿄 2750지구(사와타리 마사모리 총재)에서 주최한 3650지구 방문단 환영 오찬을 비롯, RI회장대리 내외 환영 만찬, 2750지구대회 본회의 등의 일정 등에 참석했다.



특히 자매지구 총재로서 이순동 총재는 본회의에서 축사를 펼쳐 일본 2750지구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이순동 총재는 축사를 통해 “지난 30여년동안 한일 양국 로타리안들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양국의 선배



로타리안들과 2750지구 회원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한일 양국 로타리가 패밀리 투게더의 마음으로 가족과 같은 굳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 간다면, 양국 로타리의 발전은 물론, 민간외교의 친선사절로서 양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2750 지구대회에는 사와타리 마사모리 총재를 비롯 2천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고, RI회장대리로 2012-13년도 RI회장을 역임한 다나카 사쿠지 전RI회장이 참석했다. 우리 지구 방문단 일행은 이들간의 지구대회 참관과 함께, 방일 셋째날인 2월 23일에는 도쿄 시내 관광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RI2750지구대회, 3650지구 로타리안 환영오찬



RI2750지구(일본 도쿄) 지구대회 방문과 도쿄 관광기

## 관국지광이용빈우왕(觀國之光利用賓于王)



지구 사무총장 **최진욱**  
서울무악로타리클럽

지난 2월 27일 동경 시나가와(品川)에 있는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개최된 2017-18년도 국제로타리 제2750지구 지구대회를 친선 방문하였습니다.

27명의 참석자와 함께 지구대회를 참관하였고, 성공적인 지구대회 참관 후 저녁식사 후 우리끼리의 노래방 타임을 즐기고 있는데 지구대회를 총괄하느라 너무나 바빴던 일본 2750지구 사무총장 노하타 유시로 씨와 통역 역할을 하신 요네아마우에 로타리클럽 2015-16 회장이셨던 김갑인 씨가 노래방에 합류하여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한달 후 3월 30일 서울에서의 3650지구대회에서 같이 만날 약속을 하면서 실질적이고도 의미 있는 한일 양 지구 사이의 로타리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쿄 방문 셋째날인 2월 28일 8시 50분부터 버스투어에 나섰습니다. 송귀영 한일친선위원장의 가이드로 총재님과 무악 4명, 한양 4명, 중앙, 예장, SRS, 화산 각 1명이 관광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이전에 동경에 와도 그저 골프를 위해 오는 정도라서 시내 관광투어에 나선일은 없었던지라 송귀영 한일 친선위원장님의 안내에 아무 생각 없이 관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투어지가 시나가와에 있는 센카쿠지(泉岳寺)였는데 그 곳이 충신장(忠信藏)의 47인 무사들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미야모도 무사시나 충신장의 사무라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졌던 환타지의 원형

을 찾아온 것 같아 너무 반갑게 느껴져 곳곳을 촬영하고 다시한번 그 사람들의 행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충신구라(忠信藏) 이야기는 일본의 에도시대를 배경으로 한 다이묘(大名)의 무사들의 복수극이지만 일본 특유의 문화로 해석되는 대표적인 스토리이기에 많은 소설과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고 일본 사무라이의 상징적 이미지로 되어 있으며, 명치유신 이후 또 전쟁시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하는 장치로 작용해 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센카쿠지(泉岳寺)를 방문하면서 과연 그 당시 47인을 지배했던 사고의 틀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도시대 250년을 유지했던 막부의 다이묘들에 대한 제어 장치는 참근교대제(參勤交代制)와 천하보청(天下普請)의 두 축이라는 것이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에도시대의 봉건 제도는 중세 봉건제도와 달리 다이묘들이 징세권을 가지고 단지 막부에 대하여 군사적의무만을 지고 있었던 터라 이러한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 각 번주들인 다이묘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에도에 머물도록 하는 참근교대제와 쇼군이 다이묘들에게 도로보수, 하천보수 등의 공공 사업역무를 맡긴 천하보청제도인데 다이묘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거나 다이묘의 지위를 잃게 되어 막부가 다이묘를 통제하는 방법이었지만 우연한 결과로 실제 그 두 제도에 의하여 에도의 상업발전 및 국가일체화



도쿄 방문 셋째날, 센카구지를 방문한 3650지구 일행

가 진행되었고 또 국가의 재화가 직접 공공재로 투자되는 효과로 나타나 에도시대의 발전의 축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에 따라 막부에 의하여 철저히 통제되던 에도 시대에 에도궁에서 모욕받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칼을 휘두른 다이묘인 아사노나가노리가 막부의 명령에 의하여 할복자살하고, 그 번(藩)은 다른



다이묘에게 넘겨졌고 녹봉을 받았던 무사들은 모두 낭인이 되었는데 그 낭인이 된 무사 47명이 아사노나가노리를 모욕하여 할복을 유발하였던 영주를 상대로 복수하기 위해 그 번저(藩邸)를 침입하여 가족과 있던 사람들을 남녀불문하고 살해한 다음 체포되었다가 전원 막부의 명에 의하여 할복자살한 것이 이 스토리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무사들의 강렬한 복수와 죽음의 이야기에 매료당하였다가 점점 커가면서 에도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토대위에서 도대체 그 사람들을 사로잡은 감정과 결의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감정과 의지의 동력들이 그 후 근대국가로서의 일본의 전쟁에서 일체화된 단결된 동원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내면적 심리적 토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단치면적인 현상을 가능케 하는 내면세계와

집단심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 역시 일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던 터라 더욱 센슈지 방문이 흥미로웠고 동경 관광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센가꾸지 방문 후 긴자거리를 관광하였습니다. 현대 일본을 상징하는 긴자거리에서 점심시간까지 자유시간을 가지면서 몇 사람이 커피숍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이병환 사찰위원장님의 일본요리수업기를 들으면서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위원장님이 젊었을 때 우리나라 최고의 일식집에서 수업하시다가 신라호텔에 취직한 후 조리부장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와 요리수업을 여러 번 하셨는데 동경의 츠키지 어시장에서 일일이 하나 하나 메모하여 여러 권의 메모노트가 쌓일 정도였고 고 이병철 회장의 주선으로 당시 70년 전통의 일본 최고의 복요리 전문점 후쿠겐에서 수업 받던 이야기들과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을 모시던 이야기들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긴자 G6의 커피숍에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동경에서는 소바집을 다녀봐야 한다는 이병환 위원장의 말씀에 어느 책에서 (신상목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일본사」) 읽은 소바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에도가 막부의 근거지가 된 것은 지극히 우연의 결과였는데 처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미 이에야스를 경계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에 따라 손푸에서 에도로 봉토를 옮겨야 했는데, 에도는 지형적으로 비만 오면 범람하였고 연약한 지반은 침식되기 일췌였고 하구 유역은 갈대로 뒤덮은 습지였고 얕은 여울이 많아 배를 대기도 어려웠으며, 땅은 소금기가 많아 농사를 짓기도 어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곳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끈질기고 창의로운 발상과 실행으로 에도전역에 수로를 건설하고 치수를 통해 간토평야를 개간하여 에도를 가장 번영하는 도시로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전에 따라 조닌 계급이라는 상공인 계층이 일본의 중산층으로 등장하였고 그러한

(좌부터) 최진욱 사무총장, 노하타 2750지구 사무총장, 이희봉 한네팔친선위원장



조닌 계급의 소비의 상징이 소바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도에서는 처음에 화재의 위험으로 조리주방시설을 집안에 두는 것이 제한돼 빠른 조리를 위해 흰쌀밥을 많이 먹었는데 이것이 소위 각기병을 유발하여 이 각기병이 에도병이라고 하였는데 메밀소바를 먹으면 이러한 에도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에도에서 메밀소바가 큰 인기를 끌었고 도쿄에 소바가 유명하다는 것은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메밀껍질을 벗겨 만든 흰소바는 에도의 명물이었고 지금도 흰소바가 고급소바로 평가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결국 소바를 이해하는 것이 에도의 발전과정에서의 생활사와 동경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긴자(銀座)거리를 관광한 후 점심식사 후 아사쿠사(淺草)에 있는 센쇼지(淺草寺)를 관광하였습니다.

송귀영 위원장의 안내에 따르면 천초란 얇은 풀 즉 모내기 벼를 의미하고 에도시대부터 농사짓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모내기 축제가 유명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경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로서의 절이 센쇼지라는 것입니다.

센쇼지 입구는 비가 잘내려 농사를 잘되게 하도록 뇌신,

풍신을 모시는 뇌문(雷門)이 있고 그 곳에 걸린 등이 유명하다고 하였는데, 평일임에도 많은 관광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센쇼지 안으로 들어갔더니 '오미쿠지' 라는 길흉을 점치는 제비뽑기가 있어 100엔을 내고 뽑았는데 생전에 일찍이 본적이 없는 흥한 점괘가 나왔습니다. 기대하던 사업은 모두 망하고 직원들은 모두 떠나고 깊은 병에 걸리는 흥사의 괘라는 것입니다.

송귀영 위원장은 그런 나쁜 괘가 나온 때 그 나쁜 운을 아내는 방법은 평소 사용하지 않는 왼손으로 그 괘가 나온 종이를 그 곳에 마련해 놓은 줄에 묶으면 되다고 하여 괘가 나온 종이를 접어 열심히 왼손으로 매듭을 만들어 묶어 놓은 뒤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일생 어디 가서 제비뽑기 하면 좋은 것만 뽑는 운이라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동문회나 모임에서 경품추첨을 하면 유럽항공권 동남아항공권 제주항공권 골프리조트이용숙박권을 수시로 타던 경험이 있는데 막상 그런 흥사를 예고하는 괘를 뽑아보니 황당하였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소한다고 하여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또 조코로(향로)에서 연기를 쐬어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여 성위원장님 권유에 따라 정수리부터 신체 부위에 연기를 쐬고 대웅전을 구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처상이 없는 대웅전이라는 것이 특색이었는데 모든 일본의 각 시대 건축양

식들이 다 모여 지어진 절이고 신사와 사원의 특색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흥쾌를 뽑았던 것이 가장 인상적이어서 이것도 마케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경 관광을 마치고 하네다 공항으로 가면서 동경 버스타우는 센가쿠지, 센쇼지, 긴자라는 일본 동경의 과거와 현재를 관광한 것에 대하여 의미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관광이란 원래 주역 20괘 풍지관(風地觀)의 64효 괘사인 관국지광이용빈우왕(觀國之光利用賓于王)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황태연 「실증주역」 2012, 398쪽)

주역의 해석은 워낙 다양해서 그 언어적 의미는 여러 가지 이겠지만 일본에서 관광이란 용어를 만들 때의 생각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나라의 위용과 위대함을 상징하는 빛나는 자랑거리를 직접 보고 체험하도록 하여 경외심, 소속감,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정치적 사회화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상목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일본사」 2017, 86쪽)

그런 정치적 사회화의 의미가 있어서인지 에도시대의 혼전에 대한 두 곳의 사찰과 긴자거리를 통해 일본과 일본로 타리를 좀 더 이해하고 온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고 다음 기회에 우리 로타리안들이 좀 더 많이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